

3/6/22

설교 제목: 법궤, 진설병상, 등대, 분향단 제작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출애굽기 37 장 1-29 절

- (출 37:1)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 (출 37:2)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 테를 만들었으며
- (출 37:3) 금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 (출 37:4)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 (출 37:5)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메게 하였으며 **절관주** 민 1:50
- (출 37:6)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며
- (출 37:7)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며
- (출 37:8)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 (출 37:9)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

#### 상을 만들다(출 25:23-30)

- (출 37:10)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 (출 37:11)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 테를 둘렀으며
- (출 37:12)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 (출 37:13) 상을 위하여 금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 (출 37:14)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메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 (출 37:15) 또 조각목으로 상 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싹으며
- (출 37:16)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 등잔대를 만들다(출 25:31-40)

- (출 37:17)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 (출 37:18)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 (출 37:19)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 (출 37:20)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 (출 37:21)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 (출 37:22)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 (출 37:23) 등잔 일곱과 그 불 집게와 불 뚝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절관주** 계 1:20, 계 4:5
- (출 37:24)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 **분향할 제단을 만들다(출 30:1-5; 30:22-38)**

- (출 37:25)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 (출 37:26)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 테를 둘렀고
- (출 37:27) 그 테 아래 양쪽에 금 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메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 (출 37:28)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으며
- (출 37:29)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데는 법대로 하였더라

본장은 전장에서 만든 성막 본체 안에 놓을 기구들 즉 언약궤, 떡상, 등대, 분향단을 제작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양장, 널판, 띠, 휘장 등의 성막 본체의 구조물을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원자들이 만들었던 반면 성막 안에 놓을 기구인 언약궤, 떡상, 등대, 분향단은 모두 브살렐 혼자 만듭니다. 브살렐은 그것들을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만듭니다.

- (출 37:1)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 (출 37:10)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 (출 37:17)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 (출 37:25)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브살렐은 먼저 지성소 안에 놓일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듭니다.

#### 언약궤

언약궤는 증거궤, 언약궤, 법궤, 여호와의 궤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웁니다.

- (출 37:1)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 (출 37:2)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 테를 만들었으며
- (출 37:3) 금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 (출 37:4)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 (출 37:5)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메게 하였으며

#### 명하시기를:

(출 25:10)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이 규빗 반, 광이 일 규빗 반, 고가 일 규빗 반이 되게 하고

#### 명한 대로:

(출 37:1)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이 규빗 반, 광이 일 규빗 반, 고가 일 규빗 반이며

#### 영적 의미:

이 궤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넣어 두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출 25:16)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지며

### 속죄소

속죄소는 마치 법궤 뚜껑같이 궤 위에 놓입니다.

(출 37:6)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며

(출 37:7)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출 37:8)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출 37:9)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

### 명하시기를:

(출 25:7)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이 규빗 반, 광이 일 규빗 반이 되게 하고

### 명한 대로:

(출 37:6)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이 규빗 반, 광이 일 규빗 반이며

### 영적 의미:

속죄소는 성소에서 핵심입니다.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이곳에 뿌림으로써 법궤 안에 있는 계명(율법)이 '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속죄소가 언약궤 위에 놓여있지가 않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명(율법)을 통해서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속죄소가 언약궤 위에 놓여져 있고 그 위에 대속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대속의 피를 통해서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 제물의 대속의 피로 인해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브살렐은 성소 안에 둘 진설병상과 등대와 향단을 만듭니다.

### 진설병상

진설병 곧 떡을 올려 놓는 상이라고 해서 떡상이라고도 합니다.

(출 37:10)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출 37:11)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 테를 들렀으며

(출 37:12)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출 37:13) 상을 위하여 금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출 37:14)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메는 채를 꺾게 하였으며

(출 37:15) 또 조각목으로 상 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썼으며

(출 37:16)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손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명하시기를 :

(출 25:23)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이 규빗, 광이 일 규빗, 고가 일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명한대로:

(출 37:10)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장이 이 규빗, 광이 일 규빗, 고가 일 규빗 반이며

영적 의미 : 진설병상에는 이스라엘 12 지파대로 12 개의 떡을 올려 놓습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 6:51)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떡을 당신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등대

(출 37:17)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밀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출 37:18)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출 37:19)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출 37:20)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 (출 37:21)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 (출 37:22)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 (출 37:23) 등잔 일곱과 그 불 집게와 불 뚝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 (출 37:24)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명하시기를 :

(출 25:31)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명한 대로 :

(출 37:17)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영적 의미: 등대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 1:9)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

나아가 우리들이 세상에서 지향해 나아가야 할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마 5: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분향단

(출 37:25)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출 37:26)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 테를 둘렀고

(출 37:27) 그 테 아래 양쪽에 금 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메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출 37:28)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으며

(출 37:29)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명하시기를 :

(출 30:1-2)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일 규빗, 광이 일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이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명한 대로 :

(출 37:25)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일 규빗이요 광이 일 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이 규빗이며 그 뿔들이 단과 연하였으며

영적 의미: 향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나타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할 모든 말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출 25:22)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속죄소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속죄소에 뿌려진 대속의 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니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당신이 직접 고안해 내신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심판 아래' 있지 아니하고 '피 아래' '은혜 아래' 있게 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Good News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성소를 짓되 내가 네게 보일 식양 대로 지으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법 아래 있으면 우리 모두 '죄 아래' 있어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그러면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 아래' '은혜 아래'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 살 수 있습니다.

이시간 이 말씀을 접하는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놓이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법으로 심판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이게 되어 하나님을 만나 영생의 복을 누리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